

# 순천 로봇교육과학관으로 초대합니다

해룡면 여순로에 내일 정식 개관  
돌봄·협동로봇 등 다양한 체험  
향후 로봇산업 견인할 토대 마련



순천로봇교육과학관이 해룡면 여순로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탄생했다. 순천로봇교육과학관 내부 모습. <순천시 제공>

“발달장애인 A씨가 체험관에 마련된 태블릿의 감정이모티콘 ‘마음’을 누르자 로봇과의 대화가 시작된다. “오늘 당신의 기분은 어떠세요?”라는 로봇의 첫 질문에 A씨가 “외롭다”고 답하자, “먼저 주변사람들과 약속을 잡아 보시면 어때요?”라며 로봇이 대안을 제시한다. 또 로봇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냐”는 질문에 A씨가 ‘사랑’ 이모티콘을 누르자 “사랑이 넘치는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라는 로봇의 격려가 나온다. 이 로봇의 대화는 정해진 프로그램이 아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순천로봇교육과학관 전경.

30일 정식 개관하는 순천로봇교육과학관(이하 로봇과학관)의 1층 전시체험관에서 펼쳐진 모습이다. 순천로봇과학관은 순천시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24년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해룡면 여순로에 새롭게 탄생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개설된 로봇과학관으로는 순천로봇교육과학관이 사실상 전남에서 처음이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어르신 대상 돌봄 및 협동로봇 기반의 다기능 로봇을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자율주행·드론 등 첨단산업과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층 건물로 구성된 로봇과학관의 1층에는 전시체험관, 2층엔 교육관이 마련됐다. 이곳에는 9종의 로봇 15대와 다수의 작은 로봇들이 배치돼 있으며, 이중 ‘돌봄로봇’은 6대, 협동로봇 3대, 그림

그리는 로봇 1대, 스마트물류시스템로봇 1대, 아이스크림 만드는 로봇 1대, 안내로봇 3대이다. 로봇과학관의 정식 개관일에는 별도의 개관식 없이 로봇체험회가 개최되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나랑 로봇 동화책 만들래’라는 주제의 강연도 진행된다.

29·30일 양 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로봇과

학관 관람·체험 뿐만 아니라 마술공연, 스탬프 투어, 4차산업 기술(드론, VR,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PM 등) 체험 시간도 갖게된다. 또 지난 7월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여한 로봇기업들이 총출동해 알찬 행사를 꾸리게 된다.

로봇과학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무료로 관람과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토요일에는 로봇과 순천시의 첨단산업을 접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로봇교육과학관은 단순한 로봇전시관이 아닌 체험과 교육이 동시에 진행돼 로봇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국내 로봇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내일 예울마루 대극장서 여수시민합창제

장로합창단 등 20개 합창단 참여

‘2024 여수시민합창제’가 30일 오후 1시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열린다.

여수시 주최·여수시민합창제추진위원회 주관의 여수시민합창제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8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음악을 통한 시민 대통합의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여수시민이면 누구든지 합창단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합창제에는 여수장로합창단·여수장애인나눔합창단·동여수노인복지관올림합창단·다솜어린이집합창단·한산사기름빈가합창단 등

관내 20개 합창단이 참여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4개 합창단과 ‘여수향경치’ 연합합창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러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울림을 주는 합창은 민선 8기 여수시가 만들어가는 ‘모두가 꿈꾸는 도시’의 의미와도 맞닿아있다”며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찬 메시지로 울려 퍼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정인화(오른쪽) 광양시장이 ‘광양 스타트업 컨퍼런스’ 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광양 스타트업 컨퍼런스’ 대성황

이차전지·수소 분야 300명 참석  
투자상담·로봇 경진대회 등 행사

광양의 이차전지·수소·로봇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광양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지난 26일 광양기

광양시에 따르면 이차전지소재와 수소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유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포스코와 함께 해당 분야 스타트업과 대기업, 투자기관 간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포스코 그룹·현대건설·호반그룹 등 대기업과 이차전지소재 및 수소 등 유관 분야 스타트업 40여개사, 벤처투자기관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양 벤처밸리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를 향한 스타트업 도약의 메카, 광양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광양시-포스코의 이차전지소재-수소산업 육성전략 발표 ▲스타트업 전시부스 ▲대기업 Biz 상담 및 벤처캐피탈 투자 상담 ▲초청 강연 ▲전국 학생 로봇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수소·이차전지·로봇 분야 스타트업 10개 기업은 각자 홍보용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컨퍼런스에 참여한 대기업과 투자기관에 자신들이 개발한 솔루션과 제품을 소개했다. 초청 강연에서는 하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장이 지역의 창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앞서 광주 지역 최초의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트’를 창업한 바 있으며 광주 벤처포럼, 사단법인 창업지원네트워크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온 벤처투자업계 전문가다.

Biz 상담 부스에서는 관련 분야의 포스코홀딩스·포스코엔지니어·포스코퓨처엠·포스코DX·HY 클린메탈 등 포스코 관련 그룹사와 현대건설·호반그룹 등 대기업이 참여해 스타트업에 대한 비즈니스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포스코기술투자·벤처플레이·인라이트벤처스·와이엔아처 등 벤처투자기관들도 투자 상담에 나서며, 평소엔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가 부족했던 스타트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전국 학생 로봇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함께 진행됐다. 기술의 독창성과 활용가능성, 사업화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팀에게는 상금을 수여하는 등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양 스타트업 컨퍼런스 개최는 우리 광양이 전남 제1의 벤처도시, 나아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첫걸음이다. 앞으로 이차전지소재, 수소산업 등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구례라이온스클럽 아동센터 아동 40명에 ‘사랑의 운동화’ 전달

구례라이온스클럽이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드림스타트 아동 40명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200

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기부했다. <사진>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구례군청 사회의실에서 김순호 구례군수·권중훈 구례라이온스클럽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례라이온스클럽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저소득가구 주거개선사업, 복지사각지대 현물 및 성금 지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운동화 기부 또한 어린이들의 건강상 성장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나눔이다.

이날 권중훈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지역의 꿈나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



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순호 구례군수는 “경기침체와 한파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구례

라이온스클럽에 감사드리다”며 “기탁받은 물품을 잘 전달해 어린이들이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